

주간기도정보

2025. 9. 30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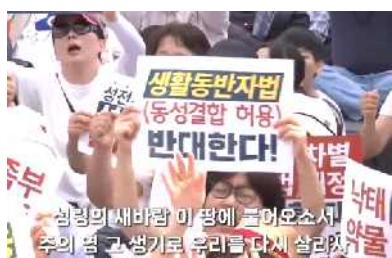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에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내자”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성평등가족부 개편·차별금지법·낙태법 개정 강력 규탄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와 낙태 허용, 성평등 가족부 확대 개편안 추진에 대항해 적극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는 5만여 명의 시민이 운집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1부 연합기도회에서 설교를 맡은 박한수 목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예레미야애가 3:39-40)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순간 죄가 시작된다”며, 성별을 스스로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성평등 사상이 자유가 아닌 파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그 결과 사회 곳곳에서 우울증, 자살, 각종 질병이 확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내 교회, 내 자녀, 내 행복만을 위한 이기심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해야 할 죄악”이라고 강조한 그는, 교회가 먼저 눈물로 회개하고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될 때 나라와 교회가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회개와 거룩 △성평등가족부 및 성별정정 법안 반대 △생활반자법·차별금지법·낙태법 개정 반대 △종교의 자유 수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기도 제목마다 뜨겁게 호응하며 국회 앞 광장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다.

2부 국민대회에서는 목회자, 법조인, 학자, 시민대표들이 연이어 발언했다. 발언자들은 현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입법이 헌법 정신을 어떻게 위배하고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지를 짚어냈다. 위성조 목사(필그림선교교회)는 교회가 역사 속에서 펍박을 받으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오늘의 위기도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 전했다.

길원평 교수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한 헌법 체계를 뒤흔드는 심각한 시도”라며 “성평등 개념이 결국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죄라 말하는 신앙적 고백조차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며, 이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회의 마지막 순서로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성전환·낙태 등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이를 반대할 자유까지 빼앗는 독재적 악법이며, 정부와 국회가 모든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출처: 아이굿뉴스 종합).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예레미야애가 3:40-41)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자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유다서 1:18,20-21)

하나님,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경건을 조롱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선 교회를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고 사는 일에, 나의 만족과 유익에 만족하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둔하였던 우리의 이기심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온 한국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거룩한 믿음과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든 제사장으로 서게 하옵소서. 복음의 등불을 든 교회를 통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다음세대와 악한 자에게 속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러 인력파견 회사, 북한 여성 노동자 파견 광고

러 극동 파견 北노동자, 러군 입대…수백명 우크라 인근 배치



러시아의 한 인력 알선 업체가 유엔의 대북 해외 노동 금지 제재를 무시하고 주당 최대 2,000명의 북한 여성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음을 광고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통상 러시아에는 건설업과 벌목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 남성 노동자가 파견돼 왔으나, 이번 광고는 여성 노동자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첫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인력공급회사 ‘스타트스타프’(Startaff)는 9월 5일 러시아 공개 입찰 플랫폼에 올린 글에서 “봉제 산업, 농업 단지, 마감 및 도장(finishing and painting) 작업을 위한 북한 노동자를 알선할 수 있다”며 러시아 북서부 모든 지역에 노동자를 신속히 파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파견 노동자 1인당 시간당 요금을 900루블(약 1만4,915원)로 제시해 러시아 최저 시급(약 2,820원)을 훨씬 웃도는 고임금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 당국이 세금, 당비, 충성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가져가기 때문에 노동자는 극히 일부만 현금으로 받거나, 식량쿠폰 형태로 지급해 실수령액은 매우 적다.

이 회사의 인력 공급 계획은 북한 국적자의 해외 소득 활동을 금지하고 2019년 말까지 전원 송환을 요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유니크 김 연구원은 “러시아 기업들이 건설업 외의 분야에서도 북한 노동력을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성폭력·임금 착취 등 인권 침해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신분증을 압수하고 이동과 통신을 제한하며 임금을 자의적으로 공제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광고에 등장하는 노동자들 역시 “북한 국영기업을 통해 조직적으로 파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K뉴스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가 약 1만5,000명 수준으로 추정, 일부 근로자들이 “노예 같은 조건”(slavery-like conditions)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언도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이 북한 여성 노동력까지 끌어들이는 배경이 되고 있다며, 이번 광고가 러시아-북한 간 경제 협력 확대이자 국제 제재에 대한 공개적 도전의 시그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에 따르면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 극동 지방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군과 계약을 맺은 뒤 러시아군에 입대했다고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국방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 수백 명은 지난 7월께부터 우크라이나 인근 쿠르스크주 러시아군 기계화 여단과 해병대 등에 배치됐으며 이들이 향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질 전투에 가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교도는 전했다(출처: 뉴시스, 연합뉴스 종합).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얹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시편 107:13-15)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린도전서 1:23-24)

하나님, 러시아 인력 회사에서 북한 여성 노동자 알선을 광고해 성폭력과 임금 착취 등 더욱 인권유린 속에 내몰린 북한 여성들을 보호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정의와 공의에서 멀어진 두 나라의 위정자들을 꾸짖으사 범죄한 심령에 주의 교훈이 들려지게 하소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 중에 있는 해외 노동자들과 병사들을 가장 선하신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기적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북한 영혼들이 있는 모든 곳곳에 보내주셔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삶으로 경험하여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좋은 일에 힘 쓰기를 배우게 하라”

ADHD 치료제 처방 청소년 5년간 2.6배 증가…‘공부 약’ 오인 우려

사교육 참여율 급등과 함께 ADHD 약 처방 폭증, 수능 응시생 4명 중 1명 꼴



최근 5년간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청소년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참여율이 급등한 세종에 처방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ADHD 치료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만7,266명이던 청소년 처방 환자는 2024년 12만2,906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 5만5,491명, 2022년 7만2,590명, 2023년 9만6,716명으로 매년 늘었다. 2024년 처방 환자 수는 2025 학년도 수능 응시생(52만2,670명)과 비교하면 4명 중 1명꼴(약 23.5%)에 달한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2020년 3만7,824명에서 2024년 8만9,258명으로 136%, 여성은 같은 기간 9,442명에서 3만3,648명으로 256% 증가했다. 2020-2024년 연령별 처방 환자 증가율은 5-9세 154.2%, 10-14세 152.6%, 15-19세 177.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만3,2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만2,653명)·부산(1만2,339명)·대구(6,518명) 순이었다. 특히 2020년 대비 증가율로 봤을 때 세종(354%)이 전국 평균(160%)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 외 지역은 전남(206.2%)·경북(203.4%)·충북(202.4%) 등 순이었다.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세종의 사교육 참여율(83.5%)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86.1%)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2014년에서 2023년까지 17.6%포인트 상승해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이기도 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은 “세종시는 사교육비 지출 급등 문제가 불거진 지역인데 이번 통계로 ADHD 치료제 사용 증가율도 역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시각이 퍼지며 청소년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교육청과 보건당국에 공동 관리 체계가 사실상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ADHD는 학원가에서 ‘집중력 높이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DHD 약을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두통이나 수면 장애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홍현주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ADHD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심리적으로 의존성이 생겨 오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출처: 중앙일보 종합).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 쓰기를 배우게 하라(디도서 3:7,14)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르므로 내 영혼을 스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셀라) (시편 49:10,15)

하나님,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과 성적의 압박감에 시달려 약물에 의존하려는 학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교회와 부모세대가 하나님 없는 지식 추구와 성공에 대한 열망은 결국 허망한 것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다음세대가 복음을 알기에 힘 쓰기를 배우게 하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스울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 복음이면 얼마나 충분한지를 저들의 심령에 새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열매 없는 세상일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이 나라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